



197×년 7월, 鳥島 남동쪽 30km에 자리잡은 무인도가 밤새에 水没하고 말았다.

해저개발주식회사에 잠수정 조종사 오노테라(小野寺)는 지구물리학자 덴쇼(田所)박사와 해양지질학자 사찌나가(幸長)조교수와 함께 심해 잠수정 와다쓰미호를 타고 조사차 일본海溝로 내려갔다.

이들은 해저溝에서 엄청나게 큰 생물이 몸을 끌고 간듯한 흔적을 발견했다. 이를 뒤쫓기 시작한 그들은 8천m의 바다밑에서 조명탄의 광선에 비쳐 구름덩이처럼 솟아오르는 海底乱泥流를 목격했다. 그것은 일본海溝에서 진행중인 거대한 변동의 조짐이었다.

사가미(相模)港의 해저에서 일어난 대형지진으로 말미암아 아마기(天城)산의 분화가 유발되고 다시 이튼날 아사마(浅間)산이 분화했다.

꼬리를 물고 일어나는 지진과 新新幹線 공사의 지연, 도로붕괴등의 재해로 총리부는 각료와 학자들의 간담회를 열었다. 田所박사도 그 중의 한사람으로 참석했다.

그 자리에서 田所박사는 해양 밑바닥의 움직임을 보고하고 지각변동이 새로운 전환기를 맞

이하고 있는 가능성을 지적했다. 그는 이어서 과거의 관측에로서는 도저히 예상할 수 없는 현상에 부딪치게 될지도 모른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직감을 가장 중요시하는 천재기질의 田所박사는 야인적 성격 때문에 아카데미즘에서 소외돼있었고 따라서 그의 발언은 묵살되고 말았다.

일본海溝의 조사속행을 희망하는 田所박사에게 원조의 손을 내민 이는 政財界에 은연한 세력을 가진 막후적 존재인 와다리(渡) 노인이었다.

노인은 田所의 발언에 주목, 정부를 움직여 내각조사실에 조사본부를 설치하고 프랑스로부터 심해잠수정 겔마딕을 구입하여 조사용으로 제공할 채비를 갖추었다.

小野寺는 회사에 일방적인 사표를 우송하고 잠수정을 구매하러 유럽으로 떠났다. 幸長는 대학에 휴직계를 낸다음 정보과학의 전문가 나카다(中田)를 끌어들여 田所박사를 중심으로 하는 <D계획>프로젝트 팀을 비밀리에 발족시켰다.

首相은 장차 일어날 사태에 대비하여 일본인의 「世界雄飛」라는 비전을 내세웠다.

잠수정이 도착하자 일본海溝에 대한 본격적 조사를 하기 위한 <D-1 계획>이 개시됐다. 최신식 정보처리기기를 실은 특수공작선 요시노를 기지로 하여 海溝斜面에 대한 잠수를 여러차례 되풀이 하면서 왕복 2천km에 걸친 조사가 진행됐다.

田所박사는 <D-1 계획>의 멤버들에게 일본 열도 부근에 생기기 시작한 지각변동의 양상을 밝혀줬다.

태평양쪽으로부터 아시아대륙의 地塊속으로 들어가는 맨틀에 의해서 지탱되고 있는 일본열도-대륙쪽으로부터 나오는 맨틀湧昇塊에 의해서 태평양쪽으로 밀려나가고 있는 일본열도를 받쳐주는 맨틀류에 対流相急變의 조짐이 나타나 이것이 연이은 대지진과 무인도의 침몰등 天災地變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더우기 걱정되는 것은 장차 더 큰 변동이 예측되어 최악의 경우에는 일본열도의 대부분이

바다 속으로 침몰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田所說을 뒷받침이라도 하듯이 매그니튜드 8·5의 대지진이 關東지방을 휩쓸어 사망자 총수 2백20만명에 피해액이 10수兆圓에 달한 이른바 <제2차 關東大震災>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東京은 궤멸상태에 빠지고 말았다.

한편 일본海溝의 조사와 병행하여 일본민족과 그 자산에 관한 처지를 연구하는 <D-2 계획>이 京都의 후쿠하라(福原) 교수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었다. 조국을 잃은 일본민족이 선택해야 할 생활방식의 테두리가 토의되고 방위청에서는 일본인 전체의 대피계획이 짜여지고 있었다.

대지진의 피해로부터 수도가 완전히 복구되지 못하고 있는동안(D-1 계획)의 조사 결과 최악의 경우에는 2년 후에 마지막 사태가 일어날것으로 보고됐다.

田所박사는 TV의 와이드쇼에 술에 취한채로 출연하여 『일본열도가 침몰한다』고 큰 소리 친 후 계획본부를 사퇴하고만다.

이것은 사회적 혼란을 미리 막기 위한 조치였으며 학자로서의 역할을 다한 田所박사의 마지막 일이었다. D계획은 이미 국가프로젝트가 되어버렸기 때문이다.

일본열도와 그 주변에 설치된 수많은 무인모니터장치는 D계획본부에 방대한 데이터를 보내왔으며 입체디스플레이장치에 의해서 列島變動의 시뮬레이션이 진행됐다.

일본열도의 입체영상은 중앙부에서 두동강이 나면서 일본海溝로 끌려들어가고 있었다. 결과

는 3백12일-그러니까 나머지 10개월이 지나면 일본열도가 침몰하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정부는 초당파회의를 열고 국민에 대한 발표시기를 검토했다. 이 뉴스는 먼저 해외의 신문에 보도됐다. 이 뉴스가 다시 일본으로 홍수처럼 전해진 날의 하오 임시국회에서 있을 <수상의 중대연설>이라는 형식으로 발표됐다.

이날 일본의 상징으로 알려진 후지산(富士山)이 대분화를 내뿜었다.

유엔에서는 일본구제특별위원회가 발족되고 일본인 난민을 받아들일 여러나라와 절충이 시작됐다.

공항은 최고밀도의 발착스케줄로 사람들을 수송하고 온갖 선박이 해상수송에 총동원됐다. 그 동안에도 지진과 분화가 꼬리를 물고 마침내는 西日本에서부터 파국이 시작됐다.

西日本일대를 엄습한 「超広域震源지진」에 의해서 생긴 해일이 열도의 지형을 바꿔가는 모양은 유인케도위성에서 목격됐다.

중앙구조線에 연하여 大断層이 생겨 거대한 龍의 모습을 닮은 일본열도는 두동강이 나기 시작했다. 그것은 분명한 <巨龍의 죽음>이었다.

7천만명이 구출되기까지 구조활동이 계속됐다. 田所박사는 渡老人과 함께 남아 평생을 함께 지낸 일본열도와 운명을 같이했다.

中田와 幸長가 D계획의 임무를 완수하고 断末魔에 사로잡힌 일본을 떠나 하와이로 향하고 있을무렵 小野寺는 시베리아의 어둠 속을 열차에 실려 서쪽으로 향하고 있었다. (完)

작가와 작품

작가 고마쓰(小松左京)는 1931년 大阪에서 태어나 京都大学문학부 이탈리아문학과를 졸업한 다음 업계지 기자, 현장감독, 가내공장장, 시사만화의 대본작가등 갖가지 직업을 편력했다.

1961년 SF매거진이 주재한 제1회 SF콘테스트에서 <땅위에 평화를>의 작품으로 노력상을 수상, 제2회 콘테스트에서 <송충의 맛>으로 입선했다.

데뷔작은 SF매거진 62년 10호의 <易仙逃里記>로

서 이후 장·단편을 계속발표하여 일본SF계의 중심적존재가 됐다.

이 작품이 73년에 발표된 직후 해저화산의 분화, 이상기상, 지진등이 작품에서 처럼 연발하여 상하권 합계 4백만부나 팔린 초베스트셀러를 기록했다.

영화화도 되고 저팬·싱크스라는 제명으로 英訳되어 해외에서도 큰 반향을 일으켰다.